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호 【루계 제2734호】

주체112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음력 12월 3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인민위원장들, 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의정토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보선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다섯째, 조직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개선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내각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경제실무적대책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라고 하면서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령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법초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실천적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리태섭대의원, 서호원대의원, 문철대의원, 김미남대의원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대의원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폐회사를 박인철의장이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는 국가사업전반에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의 전위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엄숙한 각오와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공화국 도처의 문화농촌들에 차넘치는 인민의 기쁨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남포시의 여러 농장마을에서 근로자들 새 살림집에 입사

공화국의 각지 농장마을들에 농촌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졌다.

새시대 농촌건설강령실행의 자랑찬 성과들을 실증하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남포시의 여러 농장마을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농촌의 특성에 맞게 건축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되고 건물들사이의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이 보장된 새 마을들은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식 문명창조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로고와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살림집입사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해당 도, 시, 군들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건설자들,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시기에 온 나라를 기쁨으로 들끓게 하는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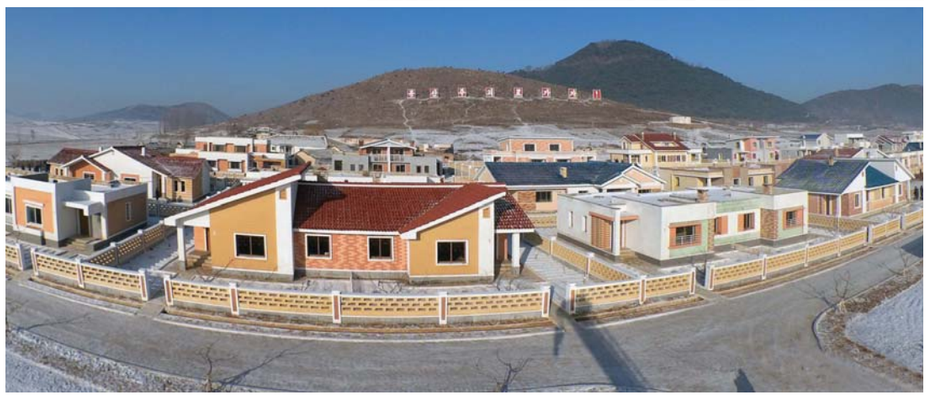
연설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중앙의 크나큰 은정속에 받아안은 오늘의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고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더 잘 꾸리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고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군들이 새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본사기자



2022년 세계적의혹, 조선의 수수께끼를 풀다

이 행성에 다변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갔다.

새해를 맞이한 세상사람들은 이제는 과거로 되였지만 력사에 기록된 지난해의 세계적인 그 모든것들을 돌이켜보고있다.

나는 세계의 이목을 비상히 잡아끈 사변들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할것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쉬이 풀수 없는 조선의 기적적사변들일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중앙통신사가 매일, 매 시각 발행하는 조국소식을 일본에서 누구보다먼저 수신하고 이를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 통신사, 신문사, 방송국, 각계인사들에게 발신하는 총련 조선통신사 일군이다.

지난해 12월에 접어들면서 도꾜에 자리잡고있는 조선통신사로는 일본과 유럽 등 세계 각지로부터 문의전화와 확스가 그칠새 없었다.

《조선은 어떻게 코로나사태를 그처럼 빨리 수습할수 있었는가?》

《그토록 가혹한 환경속에서 생존 그 자체가 기적일 조선이 무슨 힘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가?》

《조선은 어떻게 그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 있는가?》

《조선의 그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인가?》

뜻빛같이 어떻든 이 세계적인 의혹은 공화국해외공민들로 하여금 류다른 감흥과 충동에 휩싸이게 한다.

기적과 신비로 가득찬 나라, 수수께끼같은 조선!

몸은 비록 이역멀리에 있어도 조선에 대한 세계적의혹을 풀어주는것이 총련 출판보도일군의 의무임을 자각하고 나름대로 2022년 조선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저 한다.

수수께끼속의 수수께끼

2019년 12월 인류는 《COVID-19》라는 무서운 악마와 맞다들렸다.

지난 3년간 온 세계가 코로나전파차단과 왁찐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도 《COVID-19》앞에서는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다.

날이 갈수록 악화만 되는 코로나재앙으로 인류가 공포와 불안속에 떨고있던 2022년 7월 수수께끼같은 초유의 방역기적이 조선에서 일어났다.

2022년 7월 30일 일본의 어느한 잡지는 《조선 〈코로나사태〉 수습! 세기의 수수께끼》라는 표제로 이런 글을 실었다.

《마치 요술을 보는것같다. 조선에서 코로나감염증사태가 눈깜짝할 사이에 수습된것이다. 조선의 비상방역부문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현재 전국적인 발열자수는 령이다.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80일만에 악성전염병이 사실상 박멸된것으로 된다.

…

최대의 수수께끼는 국제상식과 달리 조선에서는 한사람도 왁찐을 맞지 않았다는것이다.

… 그야말로 〈세기의 수수께끼〉이다.》…

조선에서 악성전염병을 완전히 박멸하였다는것도 수수께끼였지만 그보다 더 풀기어려운 수수께끼는 조선에서 어떻게 초유의 방역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것이였다.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의 조선경내류입이 공개되자 일본을 비롯한 서방언론들은 청을 돋구어 《북조선의 위기》를 떠들었다.

하지만 조선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수년간이나 억제하지 못하고있는 《COVID-19》를 소거하고 완전한 방역안정을 되찾았다.

그것도 단 91일만에!

《COVID-19》에 대한 파악도, 경험도 부족한 조선이 어떻게 그처럼 짧은 기간에 비루스전파근원을 깨끗이 제거할수 있었을가.

수수께끼속의 이 수수께끼를 두고 세계가 놀라와하는것은 당연하다.

조선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된것은 2022년 4월이였다.

조선이 이 비루스에 어떻게 대항할것인가.

온 세계의 놀라움과 의혹의 뒤바뀜속에 조선의 날과 날이 흘렀다.

즉시적인 당회의소집과 전국적인 완전지역봉쇄,

전시용 비축의료품의 긴급해제와 강력한 군부의료력량의 수도권투입…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전체 인민이 적극 공감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이적인 현실에 세계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비루스전파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격페조치가 효과적이라는것을 인정하고있지만 그 철저한 실시에 대해서는 애당초 꿈도 꾸지 못한다.

즉시에 혼란이 아닌 반란이 일어나기때문이다.

일부 지역도 아니고 전국을 완전봉쇄한다는것은 사람들의 전면적래왕차단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중단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니라 《나》만을 절대시하는 개인리기주의가 골수에 차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인가.

후진국은 물론 현대의료기반을 갖춘 부유한 나라들이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면서도 전파공간을 통제관리하지 못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의 방역기적은 인민중심의 보건제도가 있고 집단주의와 일심단결의 기풍이 확립된 나라에서만 가능한, 수입할수도 수출할수도 없는 세계보건사에 아로새길 새로운 성공사례임이 틀림없다.

최 홍

세계를 놀래운 신화적인 방역기적을 창조하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약국들에까지 나가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고 가정에서 쓰셔야 할 상비약품까지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신 인민의 령도자,

고열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단 하루도 쉬임없이 인민을 돌보시고 이 나날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세상에 이런 인민적이고 헌신적인 령도자가 또 어데 있는가.

지구의 한쪽켠에서는 비루스전파의 비상상황시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이 《명령》, 《지시》의 일방적인 하달로 간주되고 《사적권리의 침해》요, 《경제활동의 보장》이요 하는 정치가들의 대론난속에 국민들의 생명이 롱락당할때 조선에서는 령도자는 정을 다해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충성다해 령도자를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 펼쳐졌다.

령도자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은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죽음도 이겨내게 한 불사약이였고 온 나라를 충성과 미덕의 대화원으로 가꾼 자양분이였다.

인민이 건재해야 당도 국가도 있다는 령도자의 숭고한 인민관, 덕과 정이 사회전반에 공기처럼, 물처럼 흐르는 조선의 국풍, 전체 인민의 자각적일치성에 기반하는 방역, 이것이야말로 건국이래 최악의 대동란이라고 일컫는 위기속에서 조선이 《COVID-19》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혈기왕성하게 일떠설수 있은 비결이였다.

조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조선이 이룩한 방역기적을 의문시하며 온갖 억측으로 엉터리답만 내는 《방역전문가》들에게 나는 수수께끼속의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싶다.

정치를 위한 인민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정치,

이 말속에 보통의 상식으로는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조선에서 어떻게 수수께끼같은 초유의 방역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데 대한 명쾌한 답이 집약되여있다.

덜어도 커지는 방정식

무엇이나 덜면 작아진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하지만 덜기작용이 극대화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되는 값이 있다.

지난해 조선이 겪은 위기는 사상초유의 최악이라고 할만큼 류례가 없고 엄혹한것이였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압박과 군사적도발, 계속되는 자연재해, 코로나재앙에 대처하여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년째나 주동적으로 취한 국경봉쇄조치…

이것은 분명 조선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저애하는 너무도 엄청난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그속에서도 조선은 더 밝은 래일을 자신심있게 내다보며 새 생활을 설계하였고 자기의 결심과 의지대로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냈다.

그 사례가 지난해 10월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준공된 련포온실농장이다.

나라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한개 도민들의 남새보장을 위한 온실농장으로 전변된 사실 그자체도 놀라운것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코로나재앙속에서 조선이 어떻게 세계최대의 현대적온실농장을 건설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확실히 이것은 수수께끼였다.

조선은 지난해 련포온실농장건설을 화성지구 살림집건설과 함께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풍족한 식생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새 시대의 리상촌을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깊은 시책은 련포지구에 새로운 사변의 태동을 예고하였다.

부지만 해도 280정보,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 새시대 주택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99가지의 특색있는 형식들로 설계된 1 000여세대의 살림집들…

그야말로 옹근 하나의 대농장지구를 조선은 방역대전을 치르는 속에서 2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했다.

련포라는 지명과 더불어 태여난 기적의 신화,

어떻게 조선에서는 덜기작용이 더하기로 바뀌였는가.

서방의 전문가들이 그 비결을 알아내고자 부지런히 콤퓨터건반을 두드렸지만 매번 화면에 현시되는것은 《could not》(할수 없다)뿐이였다.

확실히 조선에는 자기 고유의 방정식이 존재하고있다.

건설인력이나 자본으로만은 계산할수 없는 힘, 시련속에서 더 높이 발휘되는 조선특유의 불가항력의 힘, 그것이 무엇인가.

단언컨대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힘, 자력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해 최악의 시련을 뚫고 최상의 성과를 달성해온 조선의 행로는 이 방정식을 증명해온 과정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 응당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과 의지는 지난해와 같은 시련속에서도 세계가 괄목할 기적과 변혁들을 련이어 안아왔다.

조선이 극난한 환경속에서 경루동이나 송신, 송화지구와 같은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번화가를 일떠세우리라고 누가 예측할수 있었겠는가.

국가의 안위존망이 판가리되는 방역전쟁속에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기록적인 발전을 안아오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언제인가 일본의 한 지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사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앞에 인간은 무기력한것이 아니다. 인민이라는 존재에는 사실 거대한 에네르기가 잠재해있다. 그러나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불러일으키는것은 어느 시대, 어느 정치가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의 말에서 또 하나 찾게 되는 명답이 있다.

인민의 거대한 힘을 최대로 분출시켜 온갖 덜기작용을 더하기로 반전시키는 절대의 고차방정식은 절세의 위인만이 창조하고 응용할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조선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기적적사변들은 천사만량의 예지와 천하경륜의 창조력, 전화위복의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적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풀이된다.

실측불능의 시간

오늘날 고도로 지능화된 최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인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수백만년을 헤아리는 인류의 진화사도, 수십년후의 위성자리길도 어렵지 않게 측정하고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한 최첨단측정계기로는 잴수 없는 시간이 존재한다.

《군말이 필요없는 ICBM,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괴물〉미싸일, 이 매우 놀라운 개발속도, 처음 공개되여 약 1년 5개월만에, 명칭을 단 후 약 5개월만에 최종시험에서 성공, 분명히 초유의 개발속도, 가속적으로 강해지는 조선,… 5년, 10년후의 조선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것은 권위있는 외국의 한 군사평론가가 지난해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장에 등장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에 대해 평가한 글이다.

힘과 예술의 극치, 현대과학과 문명의 첨단, 절대적으로 최고의 최고인 조선의 열병식충격은 또 한번 세계를 깜짝 놀래우는 수수께끼를 던졌다.

완전히 새롭고 독특하며 고도로 세련되고 완벽한 대정치군사축전, 그야말로 힘과 격동과 랑만으로 충만된 최고의 예술작품을 보았다는 흥분만이 아니였다.

조선이 비축한 최강의 군사력, 그 놀라운 개발속도에 세계는 문자그대로 대경실색하였다.

그만큼 조선의 국력은 상상할수 없는 비약적인 속도로 강해진것이다.

조선의 비핵화와 제재압박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미국정계도 《조선은 이미 승리했다. 이 쓴약을 언젠가는 먹어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시기 《3, 3, 3붕괴설》을 떠들면서 조선이 언제 무너지는가를 점치느라 어리석게 놀아대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안보위협이라는 시한탄을 등에 지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이 북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끝장났다. 이제는 북조선이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은 공인된 정설이다.

미국이 조선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될 시간은 과연 언제일가.

세계는 또다시 이 놀라운 수수께끼앞에 마주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의 초강력속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에게는 이것이 시간에 쫓기우는것과 같은 악몽일것이다.》

경탄과 두려움이 착잡하게 엇갈리는 속에 세계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 수수께끼를 풀자면 조선이 왜 그토록 강해지려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조선은 이미 세계앞에 명백한 답을 내놓았다.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침략과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시대야말로 현세대가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있는 재부가운데서 가장 귀중한것으로 된다.

바로 그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가까이 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렬한 열망과 의지가 국방력강화의 비약적발전속도가 되여 미래의 모든것을 당겨왔다.

지난해 류달리 세상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진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은 신념과 의지의 최강자, 제일배짱가이신 거룩한 장군의 모습이였다.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인민을 더 위대하게, 더 존엄높게!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들마다에 하나와 같이 담겨진것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힘차게, 더 줄기차게 싸워나가자는 애국의 호소였다.

위대한 령도자가 지켜주고 떠받드는 인민, 바로 그속에 우리 재일조선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있다는 벅찬 현실이 이 가슴을 감개무량케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며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할수록 그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승리는 조선의것!

미국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정하고싶지 않은 현실이겠지만 더이상 부정하지도 못한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름아닌 미국에서 여느때없이 크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이 바로 그 증례이다.

오늘날 시간을 다스리는 강자가 누구인가.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는가.

력사는 이미 정의를 내렸다.

시간은 신념이 강하고 사랑이 열렬한 정의의 편에 있다.

세상에서 제일 강의하고 세상에서 제일 뜨거우신 인민의 령도자, 시간에 따라서 시는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간을 이끌고 나가시는 세기의 지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그 신념, 그 사랑이 당겨오는 미래의 시간에 조선이 살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단과 의지, 신념으로 전진하는 조선을 따르려는 세계의 흐름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조선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는것이다.

* * *

조선에 대한 세계적의혹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 해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다.

조선을 바로 알자면 김정은령도자를 알아야 한다.

그이의 천재적인 사상과 령도예술, 강인담대한 배짱과 완강한 실천력을 알아야 하며 그분의 원대한 리상과 목표, 불타는 사랑과 증오를 알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해마다 새롭게 펼쳐질 조선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법도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한다.

이 글을 마감하며 나는 세상을 향해 터놓고 말하고싶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가 될수 있고 약한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공화국이 그토록 위대하며 그 위대한 국가가 써나가는 발전사의 한페지한페지도 위대한것이다.

만고절세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조선의 수수께끼는 더욱 증대될것이다.

지금 내 가슴에 꽉 차오르는 진정은 오직 하나, 우리 공화국의 국위와 국광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 민족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은것이다.

(필자는 총련 조선통신사 사장임)

세상에 둘도 없는 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이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며 최고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고 혁명적당풍이다.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함에 일심전력하는 당만이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고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공화국인민들은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이 어려와 눈굽을 적신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시며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구호도 제시하여주시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길에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편의와 리익, 안녕과 행복을 위해 위험천만한 화선길들과 초강도강행군길, 북변의 돌서덜길, 림시방틀우의 철다리길, 험한 진창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처럼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주시고 지켜주시고도 인민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는 멋에 혁명을 하는것같다고 조용히 외우군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그이의 집무탁에는 공화국인민들의 생활단면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쁨속에, 만족속에 사진들을 보고 또 보시였다.

물고기차를 마중하며 기뻐하는 보양생들, 생선국을 뜨며 좋아하는 아이들, 웃음꽃을 피우며 공급받은 물고기를 들고 가는 과학자가족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벅차오르는 심정을 담아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힘주어 한자한자 써나가시였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께서 바치시는 천만로고를 자양분으로 하여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누릴 만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고 나날이 무르익어가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한마음한뜻으로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손지성

새해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

한편의 노래와 숭고한 애국의 세계

지난해가 저물던 마지막날의 밤.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이 진행되는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지고 람홍색공화국기가 서서히 게양될 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뜨거운 애국열을 더해주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조용히 따라부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조선을 몸과 맘 다 바쳐 받드실 맹세, 슬기론 인민이 일심의 성새를 이룬 공화국을 자신의 피와 땀, 온넋을 바쳐 풍요하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강대하게 꾸리시려는 애국의 웅지가 그이의 근엄하신 영상에 비껴있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이라고, 자신께서는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노래의 그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어있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비행사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이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
…

공화국인민 누구나 이 노래를 알고있으며 즐겨 부르고있다.

노래가 나온지도 수십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애창되고있는것은 가사에 참된 인생에 관한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이 노래를 두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참된 애국자의 고귀한 인생철학을 담은 정말 좋은 노래라고, 가사를 생활화, 도덕화, 철학화하였다고 하시였다.

설사 짧은 생을 산다고 하여도 그 생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삶이였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이 인생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견해이다.

그 위대한 애국, 애민의 세계, 고결한 인생관은 공화국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떠올린 위대한 원동력이였고 이 땅우에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현실을 펼친 기적의 원천이였다.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간고한 력사가 압축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공화국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나라 인민은 평화수호의 최강의 보검을 틀어쥔 가장 존엄높은 인민, 자력으로 부흥을 이룩해가는 가장 힘있는 인민으로 세계에 공인되였다. 이 땅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마냥 솟아올랐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눈부시게 펼쳐졌다.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도 할수 있는 악성전염병사태도 짧은 기간에 평정한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기적도 이룩되였다.

세계가 경탄하는 수수께끼같은 그 하나하나의 기적들, 세월을 주름잡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걸음마다에는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여 뿌리를 덮어주는 잎새처럼 조국이라는 거목을 떠받드는 길에 자신을 다 바치실 열망을 안고 끝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공화국의 오늘뿐 아니라 백년, 천년미래를 내다보시며 백승의 방략을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적예지도, 적대세력들을 초강력으로 짓눌러버리시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도, 공화국의 국가상징물들을 민족만대의 재부로 빛내여주시고 우수한 민족전통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시는 정력적인 령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애국의 세계를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다.

세계최강의 힘,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주체병기들은 공화국인민으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못할 화폭들을 되새겨보게 한다.

사랑하는 인민과 후대들에게 천년만년 끄떡없을 안전담보력을 마련해주기 전에는 자신께서는 떠난 길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이며 그 길에서 꺾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국방력강화를 위해 헤쳐가신 풍랑사나운 바다길, 폭우와 번개가 구름을 찢던 하늘길, 공기마저 얼어들던 화선길…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파도사나운 날바다를 자그마한 목선으로 헤쳐가시던 그날은 언제였고 한몸이 그대로 조국보위의 방탄벽이 되시여 적들의 총구가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들에 찾아가시던 날들은 그 얼마였던가.

정녕 경애하는 그이께서 헤쳐가신 길은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떨치신 애국의 장정이였다.

후손만대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준 영원불멸할 려정이였다.

지난해 3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인민의 리상거리가 일떠서고있는 화성지구에서 기념식수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은 또 얼마나 거룩하고 숭엄하게 인민의 가슴속에 안겨왔던가.

뜻깊은 그날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량심을 심는 사업이라는 고귀한 뜻을 천만인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시며 몸소 나무뿌리에 엉킨 새끼줄을 손으로 당겨푸시고 흙도 꽁꽁 다져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것은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품어안아 자신의 후더운 가슴으로 덥혀주시며 나라의 재부로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진정이 비낀 뜻깊은 화폭이였다.

세해전 10월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으로 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렬차를 타고 건느시던 북천의 철다리가 눈앞에 어려온다.

방틀로 림시교각을 세웠으나 물동량을 나를 때마다 조금씩 내려앉아 다시 보강을 해야 했고 아직 려객렬차의 시험운행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위험천만한 다리였다. 하지만 사랑하는 공화국이 재난의 상처를 입었기에, 큰물과 태풍에 집은 무너졌어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을 안고 사는 인민들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주고싶으셨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서슴없이 그 다리를 건느신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애국헌신의 장정은 인민을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애국자들로 키우신 나날이기도 하였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여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이라고 하시였고 어느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다 명상품, 명제품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자기의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해 애써 노력할수 있으며 그 길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시였다.

몇해전 1월 새로 만든 학습장견본들을 보아주시며 공장에 민들레라는 이름을 달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우리는 무슨 이름을 하나 달아도 조국애가 뜨겁게 안겨오고 민족적향취가 한껏 풍기게 달아야 한다. 이제 학습장공장에서 《민들레》상표를 단 학습장을 생산하면 우리 학생들의 가방도 우리의것, 교복도 우리의것, 학습장도 다 우리의것으로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것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은 자강력을 키워주는 귀중한 자양분이다. …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도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소년단원은 자기에게 젖줄기를 물려주고 품어안아 키워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제일로 사랑하고 으뜸가게 떨쳐갈 마음과 능력을 갖추어가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절세의 애국자의 그 품에서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원, 체육인, 우편통신원, 도로관리원, 수원지관리공, 중계공, 신발수리공, 산림감독원 등 이 땅의 천만인민이 애국자로 자라나고있다.

《전 나무를 심고 가꾸었을뿐입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살고싶었습니다. 나무는 죽어도 서서 죽고 잎새는 떨어져도 뿌리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설한풍이 몰아친대도 푸름을 잃지 않는 억센 소나무처럼, 설사 숨이 진다 해도 서서 죽는 이깔나무처럼 한생을 다 바쳐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려는 한 공훈산림공이 터친 진심의 고백이다.

세계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에로, 도시에로 찾아들 때 수도시민중을 파견장으로 바꾸어 탄전으로, 전야로 달려나가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이 나라 청년들의 모습은 얼마나 장하며 그 생소한 곳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저없이 떠밀어준 가정들은 또 얼마나 애국적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애국의 불길, 그이의 손길아래 자라난 애국자대군이 있어 공화국의 국력은 날마다 강해졌다.

자력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새형의 지하전동차와 무궤도, 궤도전차, 뻐스들이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안고, 인민의 기쁨싣고 달리고있다.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 력사, 지방건설발전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속에 나라의 농업도인 황남의 전야에 5 500대에 달하는 농기계들의 우렁찬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졌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의 첫걸음과 함께 농촌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문화주택들이 일떠서고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곳곳에 솟아난 현대적인 문화생활기지, 희한한 문명세계에서는 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흘러넘치고있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속에 인민의 재부는 나날이 늘어가건만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6년전 온 나라 인민의 인사를 먼저 받으셔야 할 새해의 첫아침 절절히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음성이 귀전에 메아리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시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것을 엄숙히 맹약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불같은 애국헌신, 위민헌신이 있어 부흥번영할 공화국의 탄탄대로가 닦아졌고 승리의 2022년, 환희로운 경축의 그밤을 안아온것 아니랴.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애국심을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새해의 려정도, 창창한 미래도 열어나가자.

이것이 뜻깊은 그밤 공화국의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세게 새겨진 신념이고 의지였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세계최강의 절대적힘을 억척으로 다져주시여

오늘날 공화국의 국위와 국광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상최대의 경지에 올라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이것은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 불면불휴의 령도로 만난시련을 뚫고헤치시며 세계최강의 절대적힘을 억척으로 다져주시고 자위적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화국의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600mm초대형방사포중정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초대형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은 전해지자마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끝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휩싸이게 하였으며 밝아온 새해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올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주체조선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7돐과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에서 련속 성공한 1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7년전 그날의 불멸의 그 글발을 잊지 못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

김 정 은

2015.12.15》

국방과학원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진행 (2022년 1월)

《당중앙은 수소탄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김 정 은

2016.1.3》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신 불멸의 그 글발들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은 보도되자마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천지를 진감시키였다.

그때 눈부신 기적과 위훈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던 공화국인민들은 크나큰 긍지와 영예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었다.

어찌 이뿐인가.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에서 참관하시는 속에 진행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의 련속성공은 또 얼마나 장쾌한 진폭으로 이 땅, 온 세상을 놀래웠던가.

려명이 밝아올무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새벽하늘의 고요와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주체무기의 발사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화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오르던 그 순간을 사람들은 정녕 잊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지금껏 있어본적 없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최강의 절대적힘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나날들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화폭들.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려고 머나먼 날바다길을 헤치시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여 앞장에서 걸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또 언제인가는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몸소 단정의 조타를 잡으시고 한치한치 뚫고가시며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여내리면 자멸이다, 만리길을 왔다고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심신을 가다듬으시던 그이이시였다.

그 길에서 온 세계를 진감시킨 력사적사변들인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이 일어났으며 오늘에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성공으로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바로 그래서 이 나라 인민들은 지구를 박차고 련속 솟구쳐오르는 주체무기들의 장쾌한 울림을 무심히 듣지 않는다.

그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걸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희생적인 헌신으로 떠올린 천하제일의 힘, 자기 령도자의 결심에 무한히 충직한 이 나라 인민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떠받든 불패의 힘이기때문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나날이 장성하는 공화국의 이 무적의 힘앞에 기절초풍하고있다.

가장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로 온 나라 인민들을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유 금 주

조선의 힘—불패의 민간무력

희세의 천출명장들의 손길아래 강력한 전투대오로,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로 자라난 공화국의 로농적위군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다.

로농적위군이 걸어온 자랑찬 64년의 행로에는 주체적민간무력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민간무력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정규무력건설과 함께 민간무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 형태의 민간군사조직들을 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민간무장대오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하여오신 전민무장화를 절박한 과제로 내세우시였다.

주체48(1959)년 1월 어느날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자위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과정에 전민무장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새로 조직될 민간무력의 명칭도 《로농적위대》로 확정해주신 그이께서는 1월 14일 종전의 인민자위대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보다 정예화된 로농적위대(당시)를 창건하시였다.

로농적위대의 창건과 더불어 공화국에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적대세력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로농적위대는 선군령장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전반적민간무력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통일적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고 민간무력일군양성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로농적위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민간무력건설사상과 리론을 발전하는 현실과 변천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여 로농적위대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로농적위대열병식을 성대히 조직하여 공화국민간무력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민간무력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는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로농적위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정치사상적준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적민간무력건설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필수5대교양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리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시였다.

로농적위군창건 55돐이 되는 해에 로농적위군 지휘성원열성자회의를 열도록 하시고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향토를 방위하고 조국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11(2022)년 8월에는 제6차 로농적위군 지휘성원회의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도 보내주시여 주체적민간무력의 정예화와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백승의 방략을 안겨주시였다.

로농적위군이 공화국창건 65돐경축 로농적위군열병식과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들을 통해 마치와 낫, 붓과 함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온 불패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된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군대와 함께 위력한 무장력으로 억세게 자라난 로농적위군을 가지고있는것은 공화국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군대와 더불어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강위력한 로농적위군이 있기에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성새로 우뚝 솟아 길이 빛날것이다.

김 송 미

행복의 보금자리와 설명절

이제 하루가 지나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설명절이다.

아이들도 손꼽아 기다려온 설명절을 앞두고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오른다.

소담한 흰눈이 푸른 잎새우에, 내가 살고있는 경루동의 다락식주택구들에도 소복이 쌓여 설명절전야의 흥성이는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준다.

전통적인 민족옷을 떨쳐입고 흥취나는 민요장단에 맞추어 춤판을 펼치기도 하고 윷놀이와 장기 등 민속놀이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듯 진한 민족의 향기, 생활의 향기를 느껴볼수 있으랴.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집에서도 온 식구가 모여앉아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떡국을 만든다, 찰떡을 친다, 지짐을 지진다 하면서 설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다.

이때 류다른 정서를 더해주며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수화기를 드니 시주변 농촌에서 살고있는 동생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출장길에서 언제 돌아왔습니까? 온다온다하던 우리 마을의 〈경루동〉구경은 언제 오겠소. 새집자랑 하고싶어 몸달아하는 이 동생생각을 해서라도 설명절엔 꼭 오셔야지요.》

인사와 함께 잇달리는 부탁이였다.

동생의 전화를 받고보니 생각이 깊어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래전에 지은 농촌살림집에서 살던 동생이였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우리 집식구들이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선 황홀한 다락식주택구에 새집들이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부러워하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던가.

그러던 지난해말 동생네 마을에도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현대적인 농촌마을이 일떠섰다.

농촌진흥의 새시대의 눈부신 현실이 이곳에도 한폭의 그림같은 황홀경을 펼쳐놓았던것이다.

로대가 달린 널직한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창고 등이 잇달린 살림집에 새집들이하던 날 수도의 경루동이 통채로 옮겨온것만 같다고,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울고웃었다는 동생네 집식구들이다.

그래서 온 동네가 한날한시에 받아안은 멋쟁이살림집 자랑을 하지 못해 형님에게 저토록 행복에 겨운 투정질을 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진 지난해에 온 나라 도처의 농촌들에서 새집들이 소식이 그 얼마나 많이도 전해졌던가.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 모습을 펼치며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장수원농장 소재지와 태천군 룡흥농장, 평성시 자산농장, 황주군 장천농장, 고산군 설봉농장, 회령시 창효농장, 금야군 룡원농장을 비롯하여 곳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사회주의문화농촌마을들…

희한하게 변모된 농촌마을들에서 춤바다가 펼쳐지고 새생활의 보금자리로 입사하는 새시대 농촌문명의 향유자들이 터치는 격정의 토로는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로 메아리쳐갔다.

정녕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한해 바쳐오신 헌신의 날과 날들이 아니였다면 어찌 오늘같은 행복을 생각할수 있단말인가.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위대한 어버이 그 사랑이 있어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국난속에서도 평양의 경루동이 통채로 옮겨진것과도 같은 황홀한 농촌살림집들이 도처에 솟아나고 새집들이한 행복과 자랑을 안고 이처럼 기쁨과 환희속에 설명절을 맞이하는것 아니랴.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나에게는 설명절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왔다.

어찌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쳐서만 즐거운 설명절이라고 하랴.

비단우에 꽃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족의 향기도 좋지만 위대한 수령의 손길아래 활짝 꽃펴나는 오늘의 행복과 래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끝없이 넘쳐나 더더욱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설명절인것이다.

인민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으랴.

그 어떤 천지풍파가 열백번 몰아친대도 두려울것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더 큰 승리를 향해 달려갈 맹세가 가슴에 차넘친다.

더 행복한 미래, 더 좋아질 래일을 위해 지혜를 바치고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칠 마음을 안고 나는 동생과 약속하였다.

설명절날에 동생네 새집구경을 꼭 가겠다고.

아니 벌써 나의 마음은 흰구름을 타고 행복의 무릉도원, 사회주의리상촌으로 훨훨 날아가고있었다.

홍영철

민속어휘를 통해 보는 미풍량속

임승빈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과 나눈 대담

기자: 설명절은 우리 민족의 민속명절이다.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전해지고 누구나 즐겁게 맞는 설명절풍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임승빈: 설은 고유한 우리 말로서 음력으로 1월 1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은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국가시기로부터 시작되여 고구려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쳐 오늘까지도 이어지고있다.

옛 문헌인 《동국세시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설명절날에 제사를 지내는것을 차례라 하였고 남녀어린이들이 모두 새옷을 입는것을 설빔이라 하였으며 친척이나 웃어른들을 찾아 인사하는것을 세배, 이웃끼리 서로 주고받는 설음식은 세찬, 설명절날에 마시는 술은 세주라고 하였다.

본래 설이라는 말은 나이의 뜻으로 쓰이였다.

새해가 되면 설을 한차례 더하게 된다고 하여 설날이라고 부르게 된것인데 그것이 고착되여 지금까지 쓰이고있다.

기자: 설빔과 차례, 세배, 세찬이라는 말들이 담고있는 뜻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임승빈: 설빔이라는 말에는 장식하다, 꾸미다의 뜻이 담겨져있다.

결국 설빔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꾸미는것이라는 뜻으로서 이날에 차려입는 옷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였다.

설명절 이른아침이면 가정들에서는 일찌기 일어나 이미 준비하였던 옷을 갈아입고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설인사를 하였다. 이것을 차례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떡국이 반드시 오른다고 하여 설날차례를 떡국차례라고도 하였다. 세배는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의를 귀중히 여겨온 우리 겨레의 민족적전통에서 생겨난 말로서 부모와 친척들중 웃사람, 이웃의 어른들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풍습과 관련되여있다.

이와 함께 떡국을 비롯하여 설명절의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였으며 이날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들도 준비하여 가족, 친척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앉아 들면서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

기자: 조선속담에 《설달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섭이 센다.》, 《설달그믐날 밤에 시루얻으려 다니기》 등이 있는데 설달이라는 말도 설명절과 관련되는 말이 아닌가?

임승빈: 설달이란 설을 맞는 달이라 하여 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을 이르는 말인데 《설달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섭이 센다.》는 말은 설달그믐날 밤에 될수록 아이들을 늦게까지 재우지 않기 위해서 예로부터 일러오던 말이다.

《설달그믐날 시루얻으려 다니기》라는 속담은 어느 집이나 다 시루를 쓰는 설달그믐날에 남의 집에 시루를 얻으러 다닌다는 뜻으로서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벌려놓는 경우를 일러온것이다.

이렇게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속담들에도 우리 겨레가 오랜 기간의 생활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지향과 견해가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표현속에 담겨져있다.

기자: 설명절에 우리 민족은 서로 덕담도 주고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임승빈: 덕담도 설명절과 관련한 풍습이다.

덕담은 설명절날에 세배하러 다니는 길에 친구들이나 이웃을 만나면 그해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인데 그 내용에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화목을 바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비껴있다.

오늘날에 와서 덕담은 화목하게 사는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미풍을 그대로 계승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인사말들로 더욱 풍부화되고있다.

민족의 우수성이 비껴있는 전통적인 설명절풍습은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주는 공화국에서 민족의 향취와 멋을 더해주며 더욱 계승발전되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배풍습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오냐, 고맙다. 새해에 복많이 받거라.》

세배는 설명절아침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웃어른들에게 나이순서에 따라 큰절로 인사를 드리는것을 뜻한다.

집안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다음에는 이웃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동네의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다.

그러면 어른들은 강정이나 약과 같은 단음식 혹은 놀이감 등을 장만해두었다가 세배하러 오는 어린이들에게 주었다.

이렇듯 세배풍습은 인사례법이 바르고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풍량속의 일면을 보여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방문기

민족기악의 밝은 미래를 본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를 찾아서—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음악을 사랑하였으며 조선사람의 정서와 감정, 생활풍습이 진실하게 반영된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얼마전 민족악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연주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를 찾았다.

민족음악과 민족기악을 위주로

동주용 민족기악학부 학부장을 만난 우리는 그에게서 민족기악학부의 연혁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민족기악학부는 해방후 평양국립음악학교(당시)창설과 함께 생겨났는데 그때에는 가야금, 단소를 비롯한 몇가지 민족악기연주법을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배워주었다고 한다.

민족음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음악부문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음악대학에서부터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우리의 음악에서는 민족음악이 주체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화의 나날에도 평양음악대학(당시)에서 민족음악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민족기악명수로 널리 알려진 최옥삼선생도 민족음악학부 겸임교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민족기악연주가후비들을 키워냈고 민족음악작품들을 창작보급하였다고 한다.

민족음악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을 보존하면서 그 형태와 모양, 재질에서 고칠것은 고치고 새롭게 도입할것은 도입하여 음색도 더 맑고 음량도 더 크게 하도록 가르쳐주시며 민족음악의 발전과 민족음악가후비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해 밝혀주시면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에서 교수사업을 잘하여 민족악기연주가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늘 민족기악학부는 가야금강좌, 해금강좌, 민족관악강좌와 함께 10여개의 학과를 가지고있으며 민족악기연주에 있어 소질이 있는 소학반, 초급반, 고급반의 학생들과 대학반 학생들에게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주고있다. 공화국의 이름있는 예술단들에서 활약하는 민족악기연주가들의 대부분이 이곳 민족기악학부의 졸업생들이라고 한다.

민족음악발전을 떠메고나갈 예술인재들로

동주용학부장의 말에 의하면 학부에서는 독주를 위한 교수일면에만 치우치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안삼블교육에 힘을 넣어 학생들이 연주실천에서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고 한다.

학부의 학생들이 출연하는 소해금4중주 《철령아래 사과바다》, 대해금4중주 《장군님은 평생소원 풀어주셨네》를 비롯한 작품들이 대학적인 발표회에서 높이 평가되였고 어은금3중주 《자나깨나 원수님생각》은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된 대학공연무대에도 올랐다고 한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해금강좌에 들렸을 때에는 한창 교수토론이 진행되고있었다. 리정금강좌장은 민족악기와 더불어 수십년간 많은 해금연주가들을 키워낸 교육자이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악기들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음색이 맑고 아름다우며 표현력이 매우 풍부한 우점을 가지고있다며 소해금독주곡 《초소의 봄》을 연주해보였다.

연주를 마친 그는 민족기악의 대를 이어간다는 긍지를 안고 우수한 민족악기연주가들을 훌륭히 키워내는데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우리의 생각도 깊어졌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오랜 세월 인민들의 사랑속에 발전하여온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민족악기. 민족목관악기의 맑은 음색과 민족현악기의 부드럽고 우아한 소리는 우리의 민족악기만이 가지고있는것으로서 이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악기도 대신할수 없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에서는 《세계화》바람속에 우리 민족고유의 선률과 창법이 사라지고있다.

또한 전통음악들을 개조한다고 하면서 민족악기로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마구 결합한 《퓨전국악》이라는 얼치기음악을 내놓는가 하면 《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 《옹헤야》와 같은 민요, 민족음악에 광란적인 리듬, 음률을 마구 뒤섞어놓고있다.

민족음악을 형상하거나 민족음악을 가지고 출연하는 예술단, 음악단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학교들에서는 서양음악을 가르치고있어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기타를 민족악기로 여기는 등 민족문화에 대한 개념마저 퇴색되여가고있는것이 오늘날 남조선의 현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시대발전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음악분야에서도 민족전통을 고수해나가고있다.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에서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준 녀성독창과 민족무용 《흥하는 내 나라》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국가적인 공연과 기관, 단체들의 공연에서도 민족무용, 민요, 민족기악이 적극 장려되고있으며 전국적인 규모에서 민족악기, 민족음악경연들이 진행되고있다.

이렇듯 공화국에서는 민족음악교육체계가 정연히 세워지고 실력있는 교원들의 지도밑에 예술인후비들이 많이 육성되여 민족음악의 대가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에서 우리는 더욱 개화만발해갈 민족음악의 밝은 미래를 가슴뿌듯이 안아보았다.

본사기자 김철

대중운동과 더불어 빛나는 총련의 력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국가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발전력사는 곧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심화발전과정이기도 하였다.

새 민주조선건설시기에 진행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나의 고지》운동과 군기기금헌납운동, 녀성보잡이운동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청년돌격대운동…

이 수많은 대중운동들과 더불어 빛나는 공화국의 발전사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서 벌어진 애국운동, 대중운동들도 아로새겨져있다.

해방된 이듬해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여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적긍지를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재일동포들속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위한 전동포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국방위운동과 전재동포구원을 위한 기금수집운동들이 힘차게 벌어졌다.

이 나날 재일동포들이 발휘한 애국심과 헌신적인 투쟁은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을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련에서는 여러가지 대중운동들을 벌리였다.

1961년 1월 《조국인민들의 천리마기세에 발맞추어 모범창조운동을 힘차게 벌리자!》는 구호밑에 벌어진 모범분회창조운동과 민족을 되찾는 운동을 하여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다 조선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받들고 진행된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은 각계층의 재일동포들을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였으며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교포조직으로서의 총련의 강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련이 지부를 거점으로 동포들의 권리옹호운동을 중심적위치에 놓고 대중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총련에서는 민족적권리운동을 비롯하여 동포생활봉사와 상부상조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운동들이 재일동포들의 지향과 생활상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힘있게 벌어졌으며 이것은 총련의 민족권리를 위한 사업과 동포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과 개선을 가져올수 있게 떠밀어준 강력한 힘으로 되였다.

오늘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존엄과 조선민족의 기개, 동포사회의 단결된 힘을 내외에 힘있게 떨쳐나가기 위한 애국운동, 대중운동들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5월 25일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총련의 주체적애국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동포되찾기운동에 전조직적인 힘을 넣으며 이 운동을 다양한 민족문화운동과 대중체육활동, 권리옹호운동 등과 밀착시켜나감으로써 동포들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위력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모든 대중운동들을 동포되찾기운동에 밀착시켜나가야 한다.

이는 동포들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임을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총련의 강화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모든 조직들을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지난해에 총련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관철하기 위한 전형창조운동과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분회》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정녕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총련은 수많은 애국운동, 대중운동들을 자기 발전의 력사에 아로새길수 있었다.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자랑찬 전통.

이 전통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의 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정당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35(1946)년 1월 29일 북조선천도교인 대표들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 집무실로 찾아왔다.

해방후 천도교인들도 자기들의 조직을 뭇겠다고 나섰는데 강령과 활동원칙을 어떻게 내세워야 하겠는지 더우기 공산당에서 종교조직이 나오는것을 달가와하겠는지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암중모색하다가 이 문제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아뢰여 결론을 받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겠는지 고심하다가 이날에야 마침내 용단을 내렸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 자리를 권하여주시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천도교대표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일어섰다. 그중 한 대표가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장군님께 찾아와 시간을 빼앗아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찾아온 목적은 저희들이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활동을 벌려 새 민주조선건설에 이바지하려고 하는데 장군님의 의향이 어떠하신지 알고싶고 중요하게는 처음으로 당을 조직하자고 하니 투쟁강령도 똑똑히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 평생 한이 없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시며 교시하시였다.

천도교인들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인들이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당을 조직하겠다고 한다는데 나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전부터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므로 각 계급과 계층들이 자기 계급과 계층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투쟁하는 정당을 조직하는것은 응당한 권리라고 하시면서 천도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무어 건국사업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것은 천도교의 교리에도 부합되는 권리라고 그들의 제의를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생각을 아무런 조건부도 없이 지지해주시니 대표들은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천도교의 교리와 그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천도교의 교리에는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이 담겨져있고 천도교의 투쟁구호로 내세운 《척양척왜》, 《보국안민》사상은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천도교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지난날 천도교는 자기의 교리를 지켜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오랑캐무리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다.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박인진도정을 비롯한 애국적인 천도교인들은 조국해방을 위하여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끝까지 잘 싸웠다. …

천도교에 대하여 그처럼 박식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대표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도교인들이 정당활동에 참가하겠다고 하는것도 애국애족의 리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건국열의의 표현이라고 다시금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 해방된 조국, 민주의 터전우에 건설되는 모든 정당들은 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국가로 부흥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정당으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도교인들의 정당을 조직하는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기 위하여 대표들은 숨을 죽이고 그이를 우러렀다.

우선 천도교인들의 정당이 어떤 강령을 들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어떤 계급의 정당이든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옳바른 투쟁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오늘 우리 나라에 출현하게 되는 모든 정당들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자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당강령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정당활동의 주요한 원칙적요구로 제기된다고, 만일 이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러한 당은 결코 민주주의적당으로 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표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자기들이 그처럼 고심하던 문제가 하늘의 해를 보는듯 환하게 밝혀져 기쁨을 금치 못하던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니 정말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당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의 명칭을 천도교청우당이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지 가르치심을 받고싶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겸허하게 당의 명칭을 어떻게 다는가 하는것은 그 당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천도교청우당이라는 명칭은 이미부터 천도교인들속에 알려져있는것만큼 북조선에 조직될 천도교인들의 정당도 그 명칭을 《천도교청우당》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천도교인 대표들은 그이의 뜻을 받들어갈 결의를 다짐하였으며 얼마후 천도교청우당을 뭇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푸에블로》호가 새겨주는 력사의 교훈

오는 1월 23일은 지금으로부터 55년전 공화국의 령해에 깊숙이 들어와 비법적인 정탐활동을 벌리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해 나포된 날이다.

미국으로서는 구태여 상기하고싶지 않은 수치의 날이다.

사실 오랜 침략력사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미국의 함선이 다른 나라에 나포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당시 《푸에블로》호만 보더라도 미중앙정보국이 직접 파견한 무장간첩선으로서 아주 정교하고 현대적인 여러가지 정탐설비들을 싣고 세계의 여러 대양과 다른 나라 해안들을 일주하며 거리낌없이 정탐활동을 하고있었으나 어디에서도 붙잡히지 않았다. 오직 영용한 조선의 군대에 의해 덜미를 잡히운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푸에블로》호의 나포소식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같았다.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에 있었다느니, 《해양연구선》이였다느니 하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유엔에 제소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한편으로는 남조선과 일본주둔 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의 미군에도 출동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내리고 미제7함대 주력기동부대와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수십여척의 함선들을 조선반도해역으로 들이밀었다. 지어는 그 무슨 《보복》과 《최후통첩》을 운운하며 오만하게 놀아댔다.

하지만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소동도 조선을 조금도 놀래울수 없었다.

공화국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공화국에서 울려나온 이 폭탄같은 선언은 그대로 허장성세하며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백악관을 통채로 뒤흔들어놓은 뢰성이였다.

어쩔수없이 미국은 종당에는 저들의 적대적인 정탐행위를 인정하고 항복서를 바치고서야 80여명의 선원들을 데려갈수 있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공화국의 전리품으로 남게 되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푸에블로》호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명백히 패자는 미국이였고 승자는 조선이였다.

오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바로 옆 보통강에 오도가도 못하고 얽매여있는 《푸에블로》호가 바로 그 증거물인것이다.

그때로부터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있다.

최근에는 그 무슨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공화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박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흘러온 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오늘날 공화국은 세계가 부인 못하는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있다.

이것은 그 누가 인정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변하는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도 《북조선은 세계 핵강국이다.》, 《〈북조선비핵화〉라는 꿈은 비현실적이고 허황한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사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는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짓거리인가.

지난 세기 50년대 원자탄을 가지고서도 공화국을 이길수 없었던 미국이 오늘에 와서 절대적힘을 비축한 공화국을 이길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력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55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묶이워 추위에 떨고있는 《푸에블로》호의 가긍한 모습은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에게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대결과 침략책동에 매달려 얻을것이란 수치와 패배밖에 없다는 쓰디쓴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날로 고조되는 반전평화투쟁

얼마전 남조선에서 440여개의 단체들을 망라한 《한반도종전평화깜빠니야》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각계각층이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운동단체들은 2023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가 악화되고 전쟁위험이 가득찬 한해가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각계층과 국제단체들과의 련대를 실현하여 전쟁위기를 해소함으로써 2023년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게 하기 위해 2월중에 평화를 념원하는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개별적주민들을 망라하는 《2023년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을 조직하고 조선반도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집중서명운동,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미국일본군사협력의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평화집회와 행진 등 다양한 투쟁들을 벌려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위험이 날로 고조되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공화국을 《악마화》하고 나아가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것이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제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미국과 함께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재개 및 확대하고 미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뻔질나게 끌어들이면서 핵전쟁위험을 날이 갈수록 증대시키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천년숙적인 일본것들과도 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 하는것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의 전쟁대결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최근 《확전각오》니, 《일전불사》니, 《압도적전쟁준비》니 하는 호전적폭언들을 공공연히 줴치면서 더욱 분별없이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과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조선반도정세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국면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 각계층이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와 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일상전을 등에 업고 대결광기를 부려대고있는 윤석열역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올해 그 어느때보다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해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본사기자 박 해 방

섬나라에 간도 쓸개도 다 바친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한 각계층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미명하에 《공개토론회》라는것이 벌어졌다.

여기서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채무를 남조선기업이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같은 제3자가 대신 물어주는 《병존적채무인수방식》이라는것을 내들었다.

민족의 존엄과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친일매국망동, 섬나라것들에게 간도 쓸개도 다 섬겨바치는 추악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대일외교정책을 주요《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집권초기부터 섬나라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쌍방관계의 정상화를 구걸하였지만 일본것들은 그때마다 쌍방관계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저들과의 합의를 어긴 남조선에 있으며 과거사갈등해결방안을 내놓기 전에는 그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뻗치면서 역적패당을 압박하였다.

이에 굴복한 역적패당은 지난해 7월 《강제징용피해자배상협의회》라는 민간협의회를 내오고 일본것들의 구미에 맞는 《대위변제방안》(남조선이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고 후에 일본전범기업들이 지불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어쩐다 하며 《쌍방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분주탕을 피웠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역적패당은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가 해결되여야 일본것들로부터 《수뇌회담복원》, 경제보복조치해제 등 주요현안과 갈등에 대한 양보나 타협을 얻어낼수 있다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일본전범기업들이 이미 남조선에서 자산을 철수하였고 남조선과 일본의 립장이 대립되여있는것만큼 일본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힘들다.》, 《기본은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는 문제이다. 그러자면 일본전범기업대신 제3자가 물어주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일본전범기업들의 사죄는 과거에 일본당국이 내들었던 〈통절한 사죄와 반성〉으로 대신할수 있다.》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줴쳐대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천인공노할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범죄자들대신 피해자배상금을 지불해주면서까지 섬나라것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하는 천하머저리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쓸개빠진 행태에 더욱 기고만장한 섬나라것들은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을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석열《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7개국수뇌자회의초청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더욱 압박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일본은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관계개선을 구실로 일본의 비위를 맞추려는 〈정부〉의 저자세행태를 차마 눈뜨고 못볼 지경이다.》, 《때린 사람대신 맞은 사람이 먼저 해법을 내놓는게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일본을 대변하는 놀음을 당장 그만두라.》,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배상을 받고저 하는것이지 동정 구걸하는것이 아니다.》, 《윤꼴통이 나라를 망치고있다.》, 《윤석열은 일본의 첩자인가. 정신차려라 매국노야. 윤석열의 조상도 일본놈 앞잡이였을것이다.》, 《윤〈정부〉는 친일파집합소이다.》, 《독도도 일본에 주고싶을것이다.》, 《막대기보다 못한 윤석열은 탄핵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천하매국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천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청산은 고사하고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 치욕과 굴욕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남조선의 어제와 오늘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고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

호전광의 얼빠진 넋두리

전쟁은 사람들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다.

그래서 평화는 전 인류의 오랜 념원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를 전쟁의 참혹한 재앙속에 밀어넣으려 골머리앓는 천하의 대결광, 전쟁광들이 있으니 그자들이 바로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새해가 밝기 바쁘게 《북의 도발에 확고하게 응징보복하라.》, 《압도적 전쟁준비》, 《일전불사의 결기로 대응》, 《확전각오》 등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렝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호전적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핵전력운용을 위한 《공동계획》이니, 《공동연습》이니 하고 떠들어댔다.

북침전쟁과 대결에 환장한자의 얼빠진 넋두리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전쟁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그따위 소리를 새해 첫아침부터 해대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도발적나발을 줴쳤으니 말이다.

지난해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이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했을 때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무슨 《대응》을 떠들며 발사했다는 미싸일이 오히려 날아가다가 되돌아와 호전광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이 되여 떨어지고 다른 한기의 미싸일은 비행도중 추적신호가 사라져버리는 등 역적패당의 《대북보복무력시위》놀음이 내외의 면전에서 개망신으로 끝났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파철과 같은 무장장비와 오합지졸의 무리를 가지고 절대적힘을 비축한 초강국과 《압도적전쟁》을 운운하는것자체가 무지한 발상이고 해괴하고 가소로운 허세성객기이다.

그야말로 반공화국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대결광의 미친 발작증세, 제 죽을줄도 모르고 날뛰는 미친개와 다름없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미국상전도 기절초풍하여 떨고있는데 하물며 미국의 총알받이, 하수인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일전불사》를 고아대고있으니 세인이 야유조소하고 남조선 각계가 《위험천만한 말포탄》, 《전쟁이 얼마나 삶을 비참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선제공격, 확전불사를 쉽게 말하는 〈대통령〉이 답답하다.》, 《윤석열은 그야말로 막말, 허세의 극치, 최악의 안보무능자이다.》, 《윤석열의 퇴진이 답이다.》 등으로 역도를 비난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을 굴리지 않고 내뱉는 망발과 상대가 누구인지도 가리지 않고 날뛰는 만용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다고 해야 할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무지우에서 전쟁시한탄을 장난하며 혀바닥이나 나불거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제 스스로 파멸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황천길을 재촉하는 계획

지난해말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앞으로 5년간의 군사력증대와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국방중기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호전세력들은 년평균 《국방비》증가비률을 높게 정하고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인 《대북선제타격체계》와 《미싸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강화를 핵심목표로 내세웠다.

이것은 대대적인 군비확장과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을 통해 공화국과 기어코 힘으로 맞서보려는 역적패당의 공공연한 대결흉심의 발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제하고 이에 따라 《선제타격》과 《단호한 응징》 등 호전적폭언들을 련일 내뱉으며 미국과 결탁하여 공화국을 노린 무력증강과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역적패당이 지난해 9월 조선반도수역에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집단을 끌어들여 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은데 이어 10월초 조선동해수역을 떠났던 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재진입시켜 련합미싸일방위훈련과 해상련합기동훈련을 강행하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백대의 각종 전투기들로 력대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악랄하게 감행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호전적인 대결광란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에 대처하여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의 절대적힘, 무적의 군사적강세를 온 세계앞에 더욱 뚜렷이 과시한 이 군사적조치들은 최강의 핵대응태세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발도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사수하려는 단호한 립장과 철석의 의지의 발현이였다.

만약 윤석열역적패당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공화국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조치에 비낀 엄숙한 경고에 정신을 차리고 자중자숙하여야 할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가 보여주는것처럼 대대적인 군비확장과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을 통해 반공화국대결흉심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이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의해 남조선내부에서 날로 고조되는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 하는것은 어설프기 그지없는 울바자로 해일을 막고 썩은 닭알로 청바위를 깨려는것과 같은 부질없는 망동이다.

도대체 강대한 핵보유국에 불질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미치광이들, 얼간망둥이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날로 발전하는 북의 첨단군사전력에 맞선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이 북을 한번이라도 이겨본적이 있는가.》, 《전쟁나기 전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날로 악화되는 민생은 외면한채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전쟁대결에 탕진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호전광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이 언제 가도 편안할수 없고 참담한 재앙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모한 망동질때문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이제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배영일

민생을 외면한 《특권예산》, 《대결예산》

남조선의 여야당패거리들이 무려 50여일간이나 치렬한 싸움끝에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시킨 그 무슨 《정부》예산안이 민심의 지탄을 받고있다.

그 예산안이라는것이 로골적인 《부자감세》와 《복지축소》위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만 보아도 2022년에 비하여 수십억US$나 줄어들고 형식상으로 유지해오고있는 사회의 빈곤층과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은 최저치의 절반밖에 안되게 책정됨으로써 가뜩이나 쪼들린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령락되게 되였다.

반대로 100만US$분이상의 주택 또는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자들의 세금을 면제시키거나 세률을 1%나 삭감해주고 기업들에는 《법인세》를 1%로 낮추어주었으며 금융투기업자들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의 실행은 2년이후로 미루어놓음으로써 부자들과 기업가, 투기업자들은 막대한 리득을 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혀바닥에 《민생》을 달고다니던 정객들이 만들어놓은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이 《부의 량극화를 심화시키는 로골적인 부자감세예산》, 《서민을 쥐여짜는 예산》, 《가증스러운 복지축소예산》이라고 비난해나서고있겠는가.

날로 악화되는 민생은 애당초 념두에 두지 않고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들 나름대로의 예산표를 대치시켜놓고 개싸움을 벌리다 못해 《예산끼워넣기와 바꾸어먹기》를 목적으로 밀담과 흥정판을 련속 벌려놓으며 지역예산들을 저저마다 나누어가진 너절한 거래물이 바로 2023년 남조선의 《정부》예산안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초유의 예산전쟁》, 《지각예산안》, 《패륜예산》, 《특권예산》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국회》의원들의 《예산나누어먹기》와 관련한 자료를 련일 까밝히며 《지각처리예산을 뜯어보니 실속만 챙긴것은 여야당이였다.》, 《위기의 시대에 탐욕을 추구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해보라.》고 경고해나섰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여야당패거리들이 저들의 리속을 차리기 위한 예산안책정에서는 피터지는 싸움을 벌리면서도 윤석열역도의 반공화국대결기도가 꽉 들어찬 《국방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공화국에 대한 적의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이번에 윤석열역도는 《한국형3축타격체계》와 《방위력개선비》를 포함한 올해 《국방예산》을 2022년보다 4.4%나 증액편성하면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것이라고 희떱게 떠벌이였다.

여야패거리들이 불 무서운줄 모르고 헤덤비는 부나비처럼 너절한 결탁과 공모로 반공화국대결에 숱한 돈을 퍼붓기로 확정한것은 돈내고 제 죽음을 앞당기는 바보들만이 할수 있는 추태의 극치이다.

보다싶이 《국민을 섬긴다.》는 남조선의 여야시정배들이 하는짓이란 서민들의 눈물만 짜내고 불안과 공포만 증대시키는 놀음뿐이다.

이런자들한테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는것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것만치나 어리석은짓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단상 봄은 겨울을 이긴다

엄혹한 겨울보다 혹독한 삶의 동토대가 있다. 그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은 인권의 페허지대,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와 자유의 무덤이다.

《공정과 상식》을 운운한 흉악한 협잡군, 《소통과 협치》를 웨치던 불통악한에게 속아 남조선은 밝은 빛과 따뜻함을 모르는 암흑의 동토대로 더욱 화하였다.

지난해만 보아도 남조선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윤석열역도가 해놓은짓이란 《끼리끼리인사》, 《동아리정권》을 만들어 검찰독재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얼음왕국》을 세운것이 아니던가.

《3고악재》(은행리자률인상, 환률증가, 물가상승)의 비탈진 빙판으로 경제는 거침없이 미끄러져내리건만 역도는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를 《강경대응》으로, 진실보도를 《가짜뉴스》로 락인하고 《공안》광풍으로 쓸어버리였다.

이와 함께 정치보복의 얼음구멍속에 정치적적수들을 빠뜨려 죽이려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막막한 민생때문에 땅이 꺼지도록 내쉬는 민심의 한숨이 그대로 원한의 서리로 맺히고 미래까지 얼어버린 절망의 하염없는 눈물이 고드름지는 삶의 불모지,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이다.

지난해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함과 사악함, 잔인함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했기에, 역도에게서는 더이상 희망의 봄을 기대할수 없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자기들의 힘으로 삶의 봄을 찾고저, 봄을 불러오고저 일떠섰다.

손에손에 든 윤석열역도퇴진투쟁의 초불이 봄을 부른다.

《올해를 윤석열퇴진의 원년으로 되게 하자!》

다가올 봄의 빛이고 열이 될 초불들이 온갖 악이 살판치는 《검찰공화국》, 독재의 《얼음왕국》을 불사른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오는것이 아니다.

봄이 와야 겨울이 물러가는것이다.

민심이 불러오는 자주와 민주, 새삶의 봄, 정의의 봄은 악정의 겨울을 반드시 이긴다.

박진흥

피의 력사를 부활시키려는 흉심의 발로

력사는 지워버릴수도, 없애버릴수도 없다.

더우기 외면하고 부정한다고 하여 진실이 파묻히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력사적사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망동을 부려대고있다.

최근 역적패당이 새로 개정하여 발표한 교육과정안이라는데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것이 바로 그러하다.

이것은 역적패당이 변명하듯이 개별적인 《집필진의 자률성》에 의한것이 아니라 명백히 역적패당의 고의적인 력사지우기행위이다.

남조선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군부독재《정권》의 출현을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요구하여 인민들이 벌린 정당한 대중적투쟁이였다.

이 의로운 투쟁을 교육과정안에 담아온것도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광주의 투쟁정신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군사파쑈독재자의 후예인 검찰독재자 윤석열역적패당의 마음에 들리 없는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안을 새로 개정하면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표현을 아예 삭제해치운것이다.

남조선민심이 평하듯이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명백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선포》로 된다.

군사파쑈독재자들의 피비린 죄악을 덮어버리고 파쑈암흑시대를 부활시키려는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에 전라도지역 인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인민들이 분노와 지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사실 윤석열역도는 불과 몇달전에만도 광주에 기신기신 찾아가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있다.》, 《5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추돌》이라며 낯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았었다. 하지만 《대통령》감투를 쓰기 바쁘게 언제 그랬냐싶게 《5.18민주화운동》을 아예 력사에서 지워버리려고 비렬한 삭제놀음을 벌린것은 당시 역도의 발언이 광주와 전라도지역의 민심을 사서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려는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파쑈독재의 피를 물려받은 역적패당의 본성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는것이 이번에 다시금 드러났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삭제로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교육개혁》이라는것이 사실상 교육을 파쑈독재실현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교육개악》이고 진실을 파묻어버리려는 《력사말살》이라는것이 더 론할 여지없이 확증되였다.

자주와 민주를 요구하는 광주의 시민들을 무한궤도로 깔아뭉개며 무참히 살륙한 전두환군사깡패들처럼 검찰독재에 항거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총칼을 휘둘러 짓뭉개려는 역도의 흉심이 이번 삭제놀음에 깔려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짓밟을수 없다.

파쑈독재자들의 피비린 죄악을 덮어버리며 민심의 지향과 력사의 흐름에 전면역행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선행독재자들과 같은 비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전명진

정치간상배들의 추악한 아귀다툼

남조선의 《국민의힘》내부가 당대표자리를 둘러싼 아귀다툼으로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특이한것은 지금의 아귀다툼이 지난 시기 각 파벌들사이에 벌어진 피터지는 싸움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을 띠고있다는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안에서 당대표선거에 뛰여든자들을 보면 전 원내대표,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하여 7명정도이며 그중 친윤석열파로 자처하는자들은 5명이나 된다.

그 친윤석열파라는것들이 저저마다 상대를 향해 《패륜》이니, 《좁쌀》이니 하며 내놓고 욕질을 하는가 하면 《김장련대》니, 《윤석열의 〈련대보증인〉》이니 하면서 저마끔 몸값을 올리고있는것이다.

가관은 윤석열역도의 집에 누가 더 많이 초청되였는가, 누가 더 역도의 신임을 받는 심복인가 하는것이 《검증지표》처럼 된것이다.

말그대로 당대표가 될 자질과 능력을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윤석열역도의 발바닥을 열심히 핥아주는 노복인가를 만장에 시위하는 현대판 정치신파극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권쟁탈전이다.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친윤석열파가 판세를 좌우지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비윤석열파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비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의 노예, 하인들이 당대표가 되면 주민들이 당을 얼마나 비웃겠는가, 당대표선거방식을 바꾼것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두고보아야 한다고 친윤석열파를 비난하는가 하면 윤석열의 1인독재를 막지 못하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패하게 된다고 하면서 역도가 《국민의힘》내부문제에 개입하는데 대해서도 거세게 맞서고있다.

친윤, 반윤, 비윤 등 각 파벌들이 저마끔 《반윤우두머리》, 《배신자》, 《당무개입》 등을 떠들면서 서로 상대측을 물고뜯고있어 《국민의힘》의 당권싸움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치렬해지고있다.

각파마다 《밀리면 끝장》이라고 하면서 사생결단으로 상대를 물어메치고있어 《국민의힘》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분당사태가 빚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는 판이다.

각파들이 서로 시비질하고 치렬하게 다투고있는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별반 차이가 없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날로 악화되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위해 정쟁에 미쳐돌아가는 정치시정배들의 추태는 새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정치가 싫다.》,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혐오층,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이다.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권력쟁탈과 사리사욕에 환장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의 정치간상배들에게 민심이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한일혁

만필 룡산의 《추모의 벽》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의 《윤재앙》이 기발한 《구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뭐 《주한미군전사자추모의 벽》이라는걸 서울 룡산구에 세운다나요.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 70년이 되는 올해를 그저 맞을수 없다는 주구의 노죽이지요.

룡산의 《추모의 벽》에다가는 무엇을 새기느냐 하니 전후 공화국에 대한 도발질을 일삼다가 즉사한 90여명의 미군을 새겨넣을 예정이라 합디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땅에 기여들어 개죽음을 당한것들한테 《전사자》란 웬 말이고 《추모》라니 원, 당치도 않은 수작입니다.

듣자니까 그 무슨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건립하는데 드는 자금만도 38만여US$라는데 물가폭등으로 집집마다 짊어진 산같은 채무나 좀 덜어줄노릇이지. 쯧쯧…

하긴 민심보다 상전의 심기에 민감해야 하는 《충견》의 처지로 보아 어지간히 리해는 됩니다. 제 주머니돈도 아니고 짜면 짜는대로 나오는 백성들의 혈세로 그쯤 투자가 대수겠습니까. 워싱톤교외의 《추모의 벽》건립때엔 총투자자금의 97%에 달하는 2 360만US$라는 거금도 선뜻 진상했을라니요.

자나깨나 상전을 흡족하게 해줄 일념에 옴해있는 특등주구 《미친윤》이 아니고서야 이런 《담대한 결단》들을 내릴수 없지요.

《윤재앙》이 그 해괴한 《추모의 벽》건립따위에 극성을 부리는데는 응큼한 속심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남조선과 미국에서는 여직껏 《북에 의한 남침》이라고 떠들어온 조선전쟁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북침전쟁》이라는 증명자료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조선전쟁의 근원이 더욱 명백히 밝혀지고있습니다.

그러니 숭미정책과 《반공국시》의 근간이 뒤흔들리게 되였습니다.

게다가 남조선에서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간섭을 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습니다.

인천의 맥아더동상이 화형당한 2018년에 이어 지난 조선전쟁시 가련하게도 황천객이 된 미군고용병들의 동상, 반신상들에 대한 공격이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입니다.

그리고 《윤재앙》이 공화국을 향해 《용감무쌍》하게도 《응징》, 《보복》의 피성을 질러대고있지만 파철같은 저희네 무장장비나 새떼만 날아들어도 쥐구멍만 찾는 오합지졸로는 최강의 핵보유국인 공화국과 맞설수 없다는것은 윤역도자체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일컫는 남조선에도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세우자는 발상입니다.

늘쌍 인총이 바글대는 룡산에다가 요란스러운 의식속에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세워놓으면 침략자도 《해방자》로 둔갑시킬수 있고 강점자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 그냥 밀어붙이며 얼마든지 딴전을 피울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전의 환심을 부쩍 사서 《큰형님》의 핵우산아래 더 바싹 들어설수 있을게고… 뭐니뭐니해도 꼬리도 열심히 젓고 구린내나는 발바닥이든 뭐든 기꺼이 핥아올리며 주인을 잘 섬겨야 턱찌끼나마 얻어먹으며 편안히 살수 있는게 주구의 속타산이니까요.

헌데 어쩐지 미흡해보이는데요. 기왕이면 판을 크게 벌려야지 고작 90여명이라니요.

남조선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온갖 못된짓을 일삼은 침략자, 강점군의 추악한 이름들을 다 써넣어야지요.

도발의 도끼를 휘둘러대다가 인민군의 무쇠주먹에 박산난 놈들이나 공화국의 령토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즉살탕을 먹은 놈들은 물론이구요. 윤금이녀성을 강간살해한 놈, 나물캐던 아이들을 《들오리》라 쏴죽인 놈, 무고한 녀인의 맨몸에 삥끼칠을 해대고 거리로 내몬 놈들, 나어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놈들의 악명들도 섭섭하지 않게 깨깨 올려야지요.

겸해서 귀띔할건 워싱톤의 《추모의 벽》이나 《서울룡산전쟁기념관》처럼 왕청같은 이름들을 써넣어 망신거리가 되면 큰일이니 눈을 부릅뜨고 써넣어야 할것이라는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안되겠습니다.

워낙 조선반도를 통채로 삼키고 대륙까지 거머쥐자는것이 미국의 욕심인데 차라리 그 《추모의 벽》에 한단어이면 되겠습니다.

《미합중국》

그러되 추모란 먼저 간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생각한다는 뜻인데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자들에게는 해당되는것이 아니니 차라리 《더러울 추》에 《업신여길 모》를 써야 할것입니다.

룡산의 《추모의 벽》, 그것은 그대로 미국의 비석이 될것입니다.

주광일

ㄱ—1574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